



MINI Market Report

국가	브라질
제품	버섯

주관사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CONTENTS

I. 브라질 마케팅 방안	1
1. 현지 시장 특징	1
2. 현지 시장 진출 TIP	1
II. 브라질 시장 정보	3
1. 버섯 수입추이	3
2. 버섯 시장동향	4
3. 버섯 생산 동향	4
III. 브라질 가격 정보	6
IV. 브라질 유통 정보	8
V. 브라질 통관 정보	15
1. 관세 및 기타 세금	15
2. 수입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18
3. 수입 규제	23
VI. 브라질 검역 정보	26
VII. 브라질 라벨링 정보	34
VIII. 브라질 바이어 정보	37

※ 참고자료

I 브라질 마케팅 방안

1. 현지 시장 특징

□ 브라질의 버섯 수입국 편중

- 브라질은 2013년 약 58만 2,993 달러 규모의 버섯을 수입하였으며, 수입국은 중국과 이탈리아 뿐임
- 브라질이 버섯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이며, 2013년 45만 3,442 달러 규모의 버섯을 수입하였고, 이는 전체 77.78%에 해당하는 수치임

□ 타국가에 비해 브라질 버섯 소비량 적은 편

- 일반적으로 브라질 사람들은 버섯을 요리해서 잘 먹지 않는 편으로, 브라질의 연간 버섯 소비량은 일인당 30~60g정도이며 독일 3.5kg, 프랑스 2kg, 이탈리아 1.3kg을 비교하면 매우 소량을 소비

□ 최근 버섯 소비 증가 추세

-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신선재료, 영양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버섯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 브라질 내에서 표고버섯은 새로운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레스토랑, 가정, 호텔, 소매점, 슈퍼마켓 등에서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음

2. 현지 시장 진출 TIP

□ 버섯 신선도 유지가 관건

- 신선식품의 특성상 브라질 같은 접근성이 먼 국가로 수출할 때 제품의 신선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임
- 브라질 현지 바이어와의 컨택했을 때에도,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피력하였음

□ 가격 경쟁력이 수출의 관건

- 현지 유통업체들이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상을 통해 주로 구매하고 주로 저가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진출에 어려움이 있음

□ 브라질 바이어 특성 고려 필요

-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만든 이민국가인 브라질은 식민지와 군정시대를 겪으면서 인맥과 신뢰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김
- 브라질인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래선을 잘 바꾸려하지 않는 것도 인간관계와 신뢰의 중요성 때문
- 또한 현지의 브라질 바이어에게 특별한 업무가 없더라도 가끔 안부 메일을 묻는 등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워지면 이 바이어를 통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 등이 마련되기도 함
- 인맥 관계 역시 매우 중요해 현지 기업 또는 정부단체에 접촉할 시, ‘OO씨를 통해 당신의 연락처 또는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라는 식으로 상대방과 내가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을 언급하면 훨씬 쉽게 대화가 진행되고 상대방도 좀 더 성의있는 답변을 하는 경향을 보임

II 브라질 시장 정보

1. 버섯 수입추이

□ 버섯의 HS CODE는 「0709.59」로 파악되었음

< HS CODE >

0709.5	버섯과 송로
0709.59	기타 버섯 Mushroom, Fresh Or Chilled, Nesoi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HS CODE 「0709.59」에 대한 브라질의 2013년 수입 추이

순위	수출국가	무역지표					
		수입액 (USD)	점유율 (%)	수입량 (KG)	점유율 (%)	수입단가 (미달러)	수입량증감률 (2012년 대비, %)
	World	582,993	-	200,872	-	-	-
1	China	453,442	77.78	200,800	99.96	2.26	-
2	Italy	129,551	22.22	72	0.04	1799.32	-61.29

출처 : Global Trade Atlas (www.gtis.com/gta)

- 브라질은 2013년 약 58만 2,993 달러 규모의 버섯을 수입하였으며, 수입국은 중국과 이탈리아 뿐임
- 브라질이 버섯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이며, 2013년 45만 3,442 달러 규모의 버섯을 수입하였고, 이는 전체 77.78%에 해당하는 수치임
- 이탈리아는 약 12만 9,551 달러 규모의 버섯을 브라질로 수출한 것으로 집계됨
- 2013년 중국으로부터 20만 800kg의 버섯을 수입하였고 이는 전체 99.96%에 해당하며, 이탈리아로 부터는 약 72kg의 버섯을 수입하였음

-
- 단가의 경우, 중국 버섯은 kg당 2.26달러, 이탈리아 산 버섯은 kg당 1,799.32 달러로 중국산 버섯은 매우 저렴하며 이탈리아산 버섯은 매우 고가임을 알수 있음

2. 버섯 시장동향

□ 브라질 버섯 소비 동향

- 일반적으로 브라질 사람들은 버섯을 요리해서 잘 먹지 않는 편으로, 브라질의 연간 버섯 소비량은 일인당 30~60g정도이며 독일 3.5kg, 프랑스 2kg, 이탈리아 1.3kg을 비교하면 매우 소량을 소비
- 브라질의 버섯 생산량 중에 약 60%는 가공되지 않은 채로 소비되며, 40% 정도는 가공 식품으로 소비됨
- 하지만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신선재료, 영양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버섯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 최근 브라질에서 버섯 소비가 급속하게 증가 하고 있지만 한국만큼 상품화된 버섯이 다양하지 못함
 - 그 중에서 표고버섯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흰들버섯 순임
- 브라질 내에서 표고버섯은 새로운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레스토랑, 가정, 호텔, 소매점, 슈퍼마켓 등에서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음
- 버섯 시장은 브라질에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버섯에 대한 인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3. 버섯 생산동향

□ 브라질 버섯 생산 동향

- 브라질의 버섯 생산은 기후의 영향으로 주로 남부 및 남동부 지역에서 생산됨
- 브라질 남부에 위치한 Mogi das Cruzes시 주변에는 아가리쿠스 버섯 재배가 활성화

되고 있음

- 브라질의 연간 아가리쿠스 버섯 생산량은 약 5,000톤이며 이 중 95%가 통조림 산업에 사용됨
- 브라질에서 흰들버섯 (*Agaricus blazei*)는 연간 5,200톤 생산되며 이러한 버섯들은 팔기 전에 모두 말려짐
- 몇 년 전부터 대만으로부터 소개받은 양송이 버섯을 브라질 버섯 농가들이 재배하기 시작하였음
 -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버섯은 거의 대부분 아시아 기술로 재배되고 있음
- 양송이 버섯은 중부나 북부 지방보다 온화한 기후를 가진 브라질 남부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음
- 브라질 버섯 재배농가는 대규모 형태지만, 시설은 낙후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생산량이 한국재배 시스템에 비해 매우 낮음
- 재배기술 수준이 매우 낮아, 한국 버섯 재배 기술을 농가에 직접지도하면 브라질 버섯 재배 농가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브라질 사람들의 버섯에 대한 요리, 약효의 가치를 알게 됨에 따라 버섯 재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브라질의 버섯 재배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 발달과 연구로 인해 생산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III 브라질 가격 정보

□ 브라질에서 버섯은 주로 마트나 채래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음

– www.agaricusblazeimurrill.com.br/en/, www.buscape.com.br
www.stockfood.com.br/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버섯 구입 가능

업체명	Quero	Hemmer	varanda
제품 이미지			
제품특징	100g	100g	250g
가격	R\$ 6,39	R\$ 5,79	R\$ 8,98
	\$ 2.61	\$ 2.37	\$ 3.67

출처 : www.buscape.com.br

업체명	Inteiro	RAIOLA	Zuppa
제품 이미지			
제품특징	200g, canned	100g, canned	200g, canned
가격	R\$ 6,42	R\$7,30	R\$ 5,19
	\$ 2.62	\$ 2.98	\$ 2.12

출처 : www.buscape.com.br

업체명	-	Hikari	MR VEGETAIS
제품 이미지			
제품특징	100g, canned	180g, canned	200g
가격	R\$ 6,49	R\$ 11,65	R\$ 17,95
	\$ 2.65	\$ 4.76	\$ 7.34

출처 : www.buscapes.com.br

IV 브라질 유통 정보

□ 유통 채널

-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이 판매를 리드하여 점유율 54%를 차지하는 유일한 국가임
- 다른 중남미 국가들은 전통적인 소매, 잡화점, 빵집, 정육점등이 판매의 67%를 차지
- 브라질의 이러한 특징은 높은 인플레이션 시절의 영향으로, 대규모 유통체인이 항상 더 나은 가격으로 물품 제공 가능했기 때문으로 분석
- 브라질 유통구조는 크게 재래식 시장과 현대식 시장으로도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재래식 시장의 경우 중산층, 저소득층,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시장으로서 철저한 가격경쟁 중심, 비공식적 유통구조가 특징
-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
- 전자제품 시장인 Santa Ifigenia, 장신구 및 잡화 시장 25 de Marco, 중저가 의류시장 Bom Retiro 와 Bras, 가구 및 악기 시장 Teodoro Sampaio 등이 이에 해당
- 이러한 재래시장은 막대한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도매시장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음
- 반면, 현대식 시장은 고소득층,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고객층을 갖고 있는데 품질, 디자인이 주요 소비 요인이 되고 있고, 경쟁적이며 공식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상품이 유통됨
-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 식료품 소매점들은 주로 신선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노동자인구가 증가하면서 포어코트 소매점, 편의점, 인터넷상점과 같이 더 편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신선한 과일을 구매하고 있음
- 식료품점의 유통기술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

-
-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은 상품검색 · 주문 · 배달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편리함 제공’은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 요소가 되었음

□ 브라질 유통망 구축방안

- 브라질에서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브라질 최대 소비지역인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리우 데 자네이루, 꾸리찌바, 브라질리아 등 상권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음
- 즉, 아래와 같은 순서로 판매망을 늘려가는 것이 효과적
 - 1 개: Sao Paulo
 - 2 개: Sao Paulo, Rio de Janeiro
 - 3 개: Sao Paulo, Rio de Janeiro, Curitiba
 - 4 개: Sao Paulo, Rio de Janeiro, Curitiba, Brasilia
 - 5 개: Sao Paulo, Rio de Janeiro, Curitiba, Brasilia, Salvador
- 현지 유통업체들이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상을 통해 주로 구매하고 주로 저가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진출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제품 공급업체가 주로 수입상이므로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유통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수입상을 물색하여 수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각 분야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품을 직접 홍보하는 한편, 현지 전문 유통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맺어 시장진출 시 필요한 정보 및 유통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
- 2012년 기준 브라질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8천 200만 명(2012년 12월 확인, 가장 최근자료)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고 신문, 전문지 광고 등을 활용하는 등의 홍보 전략도 중요

□ 소매 시장

- 브라질의 경제성장, 인구 증가,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인해 브라질의 소매시장 전망은

매우 긍정적임

- 접근의 용이성과 중산층의 등장 또한 멕시코 소매시장 성장의 배경임
- 브라질은 남미대륙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아 소매 시장의 규모도 매우 크며, 이로 인해 국내외 소매업체들이 많이 모여듦
- 소득이 증가한 소비자들이 가구, 전자제품, 자동차, 옷 등 내구재 구매액이 늘어나면서 식료품 외의 시장도 큰 성장을 하고 있음

□ 소매 시장 현황

- 브라질의 음식 소매 판매액은 5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이는 국내 총 소매 판매액의 30%를 차지하며, 총 GDP 대비 7%의 수준임
- 최근 하이퍼마켓과 슈퍼마켓 체인들이 소규모 지방 상점들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브라질 인구의 잠재 구매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대규모 식품 소매업체들이 브라질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 또한 브라질의 상점들의 통폐합이 빈번히 일어남과 동시에, 식품 소매 상점들의 형태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
- 국내 기업인 CBD와 국제적 기업인 Walmart, Carrefour가 시장 점유율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있으며, 중소 기업들과의 통폐합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지고 있음
- 다국적 식품 소매 기업들의 경우 초기에는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남동부와 북동부로 진출하였으나, 이후 다른 지역으로의 투자도 진행되어지고 있음
- CBD와 Carrefour는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Sao Paulo에서 투자를 시작하였으나, 최근 덜 부유하나 총 인구의 30%가 거주하는 대규모 도시인 Rio de Janeiro로 주요 투자 지역을 옮김
-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층의 식품 소비량 증가로 인해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94년도 이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률로 인해 구매자들이 낮은 가격에 대량 구매

가 가능한 MGR 상점과 하이퍼마켓에 의존하는 양상 보였으나, 정부가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구매자들의 구매 양상 또한 바뀌었음

-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상점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소매 체인들은 슈퍼마켓, 할인점, 온라인 쇼핑몰 등의 서비스를 내놓고 있음
- 이러한 대규모 소매 업체들은 식품 이외 부문의 경쟁력이 높지 않아, 가전제품과 가정용품도 판매하기 시작함
- 소비자들이 가까이 있는 상점을 선호하면서 작은 상점들이 인기가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 하이퍼마켓 형식을 유지해 오던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소규모, 중소규모의 체인점을 내놓기 시작함
- 편의점 또한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주유소의 개념인 'Gas Marts'의 수익성이 매우 높아짐
- 국내에서 가장 큰 음식소매업체는 프랑스계 소매업체인 Casino가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기업 CBD임
- 프랑스계 대규모 소매 업체인 Carrefour는 1975년 브라질에 진출하여 현재 110개의 하이퍼마켓, 37개의 슈퍼마켓, 280개의 할인매장을 소유하고 있음
- Wal-Mart의 경우 Sao Paulo의 Sam's Club 매장을 시작으로 브라질 시장으로 진입한 지 10년이 넘었으며, 현재 300개의 MGR 마켓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체인점을 보유하고 있음
- 네덜란드 기업 SHV의 자회사인 Makro Atacadista는 브라질 21개 주에 걸쳐 50개의 점포를 운영 중임

□ 농수산물 유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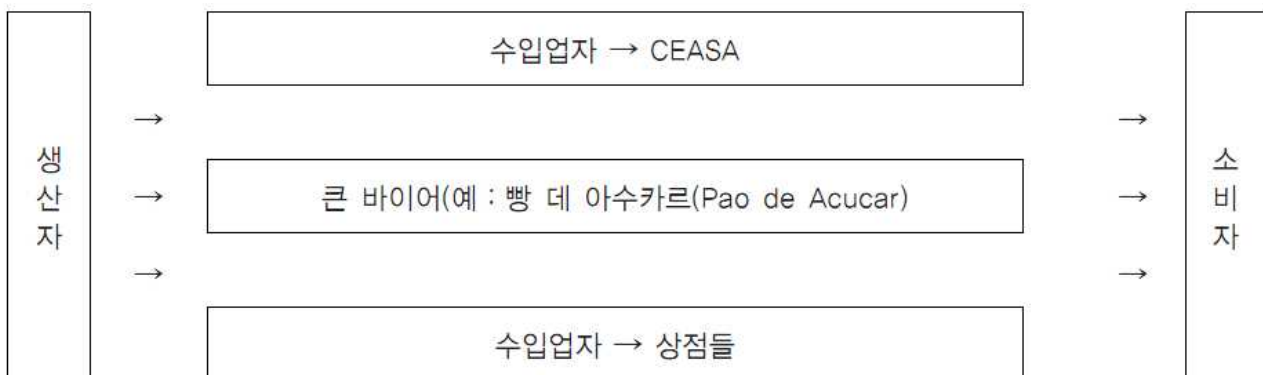
- CEASA는 공공공급센터(Supply Centers)로 주가 소유한 기업 또는 조인트벤처 형태이며, 도매와 지역 차원의 원예(hortifructiculture) 마케팅, 홍보, 규제 등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계획하고 있음
- 주, 지역 정부와 동업관계를 맺는 Ceasas는 브라질 수도에 있음

- 브라질에 있는 Ceasas 그룹은 1,400만 톤의 작물을 취급하고, 연간 운영 재정이 100억을 넘어섬
- 분권화된 네트워크와 약 40개의 행정 단위, 53개의 주요 비즈니스 단위와 많은 소규모 단위로 구성되며, 도시에 식품 공급의 상당한 부분을 책임짐
- 미나스 제라이스(MG)의 주요매장은 전국 400개이며, 지방자치 당국으로부터 약 50,000헥타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책임을 지는데, 130개가 넘는 다양한 상품이 있음
 - 품질책임, 특히 과일 시장가 형성에 책임이 있음
- 공공의 목적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지만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10,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57개의 도매 창고에 35개의 회사들이 속해 있고, 21개의 브라질 자치주에 위치해 있음
- 이 시스템은 70년대에 생겼으며, 국립 공급 시스템(SINAC)의 설립이후 전체적인 시스템이 됨(스페인의 공적모델(Mercasa)에 기원을 두고 있음)
- SINAC의 첫 계획은 공급과 가격 사이의 최상의 균형을 주면서 생산업자와 유통업자 사이에 업계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지역 도매상 사이의 기술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었음
- 자치주, 지방 자치단체와 함께 SINAC과 중앙 공급(Central Supply)으로 명명된 21개 기업들, Ceasas, 크고 작은 도시에 소재한 34개 도시 도매 시장들과 지역 도매 시장, 32개의 크고 작은 소매 시장들에 영향을 끼침
- 90년대 후반, 브라질 주와 조합에 속한 두 개의 가장 큰 도매상 Ceagesp(SP), Ceasaminas(MG)은 채무 재협상 과정에서 국가의 과일과 채소 도매의 50%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연방화되었다가 후에 민영화되었음
- 지역 도매 공급업자들의 하위 시스템으로, 큰 창고가 있어 전국유통센터의 역할을 하고 지역 또는 지방자치정부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브라질 최대 농수산물 시장인 쉐아제스빠(CEAGESP)는 13개 도매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는 수도에, 12개는 주에 소재함

- 생산자와 판매자, 거리 시장, 슈퍼마켓, 도매 시장, 식당과 생산 유통업자를 위한 지역생산, 유통경로임
- 아라사투바(Aracaatuba), 아라라夸라(Araraquara), 바우루(Bauru), 프랑카(Franca), 구아라칭게타(Guaratinguet), 마릴리아(Marilia), 피라시카바(Piracicaba), 프레지덴테 프루덴테(Presidente Prudente), 히베이랑프레투(Ribeirao o Preto), 상조제두스캄푸스(Sao Jose dos Campos), 상조제 히우프레투(Sao o Jose do Rio Preto), 소루카바(Sorocaba), 상파울루(Sao o Paulo)의 도소매 시장은 소비자들에게 할인 가격 제공 등으로 판매를 늘리고 있음
- 수도에 위치한 센터는 전국적·세계적으로도 상업적 규모가 크며 중요도가 높음
- 만 톤 이상의 과일, 두류, 야채, 어류와 화훼류가 매일 센터를 거쳐, 상파울루 지역공급의 60%이상을 차지함
- 해외 18개 국가뿐만 아니라 23개 브라질 주의 1,500개의 도시에서 도착한 다양한 생산물이 팔리고 있음
- 상품을 실은 트럭은 다른 주의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음
- 700평방미터인 수도에 소재한 센터는 하루에 약 만 여대의 차량과 3만~5만 명이 유동 인구임
- 쎬아제스삐(CEAGESP)의 도매 센터들은 모두 한 달에 약 350만 톤을 판매하고 있음
- 곡물 창고는 처리, 건조, 세척 등 여타 서비스를 제공하여 손실을 감소시키고 생산물 상품상태를 높이는데 기여
- 쎬아제스삐(CEAGESP)에는 지역 생산업자, 정부 기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그리고 협력업체와 생산공장이 있고, 품질 유지를 위해 브라질 상품 선물거래소(Brazilian Commodities and Futures Exchange)가 품질을 인증함
- 쎬아제스삐(CEAGESP)는 도매기능에 원예작물, 화훼, 가금류와 여타 상품들의 소매 시장인 “VarejDes(큰 도매 시장)의 서비스도 있음

- 첫 번째 소매 시장은 1979년 9월 상파울루 터미널 창고 내에서 시작되었으며 ESTP의 소매 시장은 현재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 3회 열림
- 거리 시장과 유사하지만, 품질 보증과 가격통제가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켄아제스빠의 소매시장은 매월 약 2,000톤의 상품이 거래되며 내부 소매 시장은 소루카바 (Sorocaba)에서 열림
- 1997년 켄아제스빠(CEAGESP)는 연방정부로 인계되어, 농축산공급부(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Supply) 소속임
- De Manchi는 다른 유통단위에 공급하고 있으며 유니레버(Unilever), 네슬레(Nestle), 다논(Danone), 파마랏(Parmalat)과 같은 세계적 브랜드업계를 포함하여, Casa do Pao de Queijo, Habbi´ss, Outback Steak House, T.G.I Friday´ss와 같은 식품서비스 기업과 소매상에서 거대 하이퍼마켓에 이르기까지 소매매장에도 유통하고 있음

<브라질 농수산물 유통흐름>



V 브라질 통관 정보

1. 관세 및 기타 세금

□ 버섯 관세율

HS CODE	국문품명	관세율
070959	버섯	기본 세율 10%

□ 브라질의 관세 제도

- 브라질은 1995년 발족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일원으로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대외공통관세(CET : Common External Tariff)를 채택하고 있음
-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를 통해역외 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회원국들 간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대부분의 역내 교역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설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별도의 무역 메커니즘을 통해 규율됨
- HS코드와 마찬가지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 사용하는 NCM(HS코드)은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음
-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통관세는 2013년 8월을 기준으로 총 10,029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음
- 2012년 7월 베네수엘라 남미공동시장 신규 가입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는 과거(1990년 32%)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선진국들은 물론 러시아(6%), 중국(8%) 등이며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임
- 브라질의 수입 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관세는 종가 관세(ad valorem tariffs)임

-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소해 오던 평균 수입관세는 2007년부터 점차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 10.61%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기준 브라질의 평균수입 관세율은 10.6%임
-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원자재(평균 8~9%)나 반가공품(평균 11.9%)은 완성품(평균 15.8%) 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대외공통관세 적용의 예외로서, 자본재(capital goods), 정보통신(IT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제품 등 일부 품목은 특혜관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어 0~2%의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민감한 100개를 지정하여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예외품목리스트 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음
- 동 제도 적용(2012년 10월 1일 발효)에 따라 브라질의 해당 100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이 13.5%에서 22.2%로 인상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주력 수출품목인 굴삭기, 철강, 화학 등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 있음
- 2013년 8월 1일 Mantega 브라질 재무장관은 100개 예외품목 시행의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주무부서인 개발상 공부 측은 결정된 바가 없다는 상충된 입장을 밝히는 등 동 조치 관련 정부가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바 있음

□ 기타 세금

- 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II) 외에도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부가 가치세인공산품세(IPI)와 주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인 상품유통 및 서비스세(ICMS), 사회보장세(Pis/Cofins)를 부담하여야 함
- 공산품세(IPI)의 경우, 국산제품은 판매시점에, 수입제품은 통관 시에 부과됨
- 공산품세는 부가가 치세이므로 판매시점에 최종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며, 이는 판매자의 매출세액으로 계산되어 추후 매입세액(통관시지불한세액)과 함께 정산할 수 있음
- 공산품세는 브라질 내 최종소비자에게 얼마나 긴요한 품목인가의 정도에 따라 세율을 최저 0%에서 최고 300%(담배 등)까지 적용
- 상품유통·서비스세(ICMS)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국산 제품과 수입제품

모두에 적용

- 수입제품의 경우 CIF+관세+공산품세가 적용된 가격에 부과됨
- ICMS는 공산품세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전가됨
- ICMS 세율은 주 별로 12~18%이며 주 경계 밖으로 상품이 이동할 때에는 목적지 주 정부의 세율이 적용됨
- 수출상품이나 건설 서비스, 광업, 전기에너지, 액체 및 가스 연료, 국내생산기계와 장비제품에는 ICMS가 면제됨
- 사회보장세(Pis/Cofins)의 경우, 과거에는 국산제품에만 적용되었으나 2005년 4월부터는 수입제품에도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음
- Pis / Cofins 세율은 9.25%로 CIF+관세+공산품세+상품유통 서비스세를 합산한 가격에 부과됨
- 이렇게 복잡한 세금체계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누증방식의 세금계산과 맞물려 수입 가격이 거의 배로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함
- 세계은행 발표 자료를 보면 브라질이 세금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2,600시간으로 OECD 국가의 187시간 대비 14배 이상 소요되는데 우리 기업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세금체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됨을 염두에 두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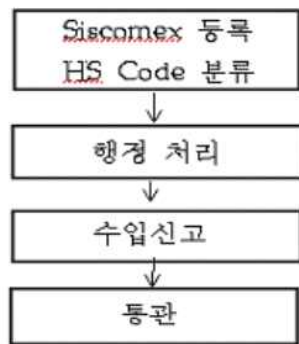
2. 수입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 브라질의 통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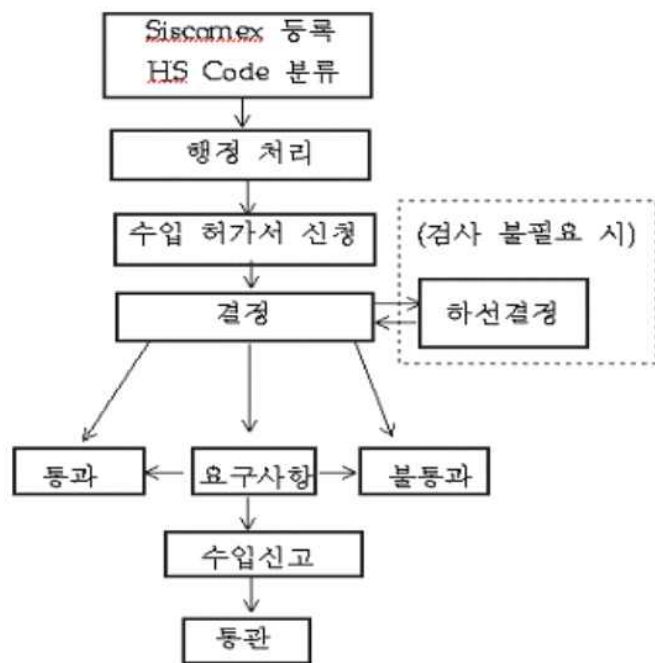
1) 수입 신고

- 브라질 내 수입업자는 개발상공부의 대외무역국(SECEX)에 등록을 해야만, 무역 자동화 시스템(SISCOMEX)을 이용할 수 있음
- 대외무역국은 1997년 1월부터 무역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상당수 품목이 수입 자동 허가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
- 대외무역국 등록은 무역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첫 번째 거래 시 납세번호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최소자본금 구비 요건 등을 갖춰야하는 등 수입업자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음
- 다만, 2007년부터 무역 자동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됨으로써, 무역등록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고, 관련 비용들도 무역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산정되도록 개선되었음
- 한편, 수입 관련불법 행위가 발각될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지급기간이 360일을 초과하는 수입 거래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함
- 상품이 브라질에 반입되면 브라질 관세법을 적용 받게 되며 내국 물품화를 위한 통관 절차를 밟게 됨
- 일단 도착한 화물은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해 보세창고에 보관됨
- 수입자 또는 통관사는 수입신고(Declaracao de Importacao : DI)의 절차를 밟아야 함
- 수입신고는 SISCOMEX(전자 무역시스템)를 통해하며 수입세(Imposto de Importacao), 공업 제품세(IPI), SISCOMEX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수입허가서(LI)가 필요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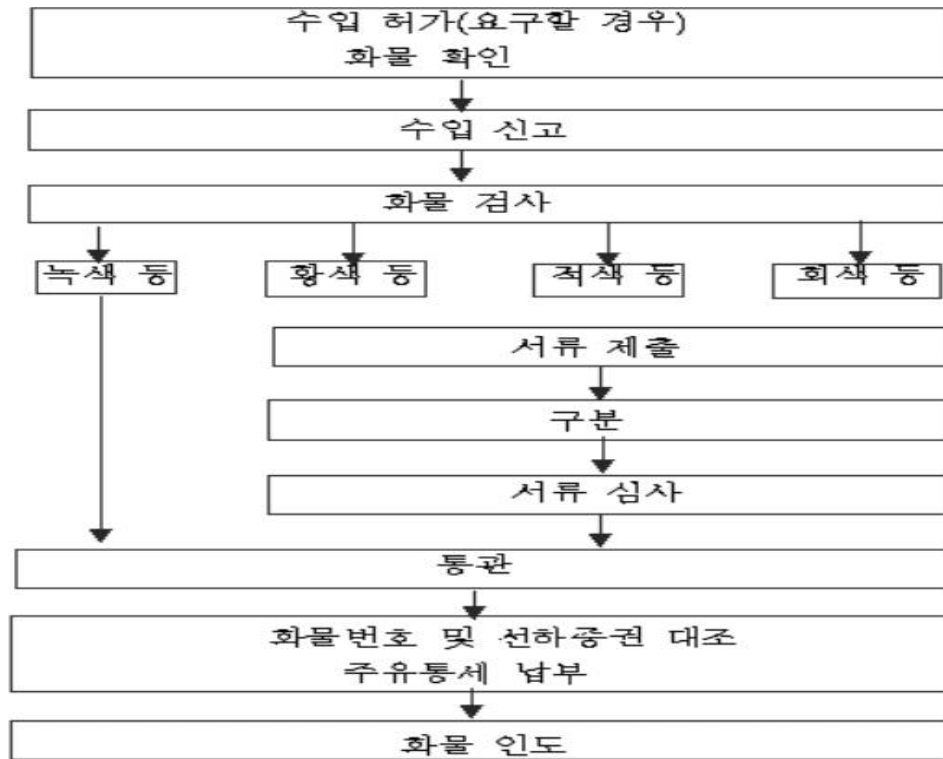
수입허가서(LI)가 필요한 경우



- 모든 세금 및 비용 납부가 완료되고 화물 검사 및 화주 확인이 끝나면 연방 세무국은 SISCOMEX를 통해 수입면장(Comprovante de Importacao)을 발급하며, 이것으로 통관이 완료됨
- 제출서류 :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입허가증(LI), 선하증권(Conhecimento de Embarque), Commercial invoice 등이나, 각 화물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름

2) 물품 검사

- 수입신고를 완료하면 SISCOMEX는 자동적으로 세관 반출을 위한 화물검사를 지시
- 화물검사는 녹색, 황색, 적색, 회색채널의 4가지로 구분
 - 녹색 : 자동 통관
 - 황색 : 서류심사 필요
 - 적색 : 서류 심사 및 화물 검사
 - 회색 : 서류 및 화물의 정밀 검사



- 자동 통관인 녹색채널을 제외한 기타 세관 검사는 수입자가 연방 세무서에 직접 수입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브라질은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협상국 중 통관절차 및 기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국가로 분류됨
- 브라질 연방 세무국은 2012년 3월 19일부터 “Operacao Mare Vermelha”로 불리는 화물 검사 강화 조치를 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저가 상품이 다량 유입돼 브라질 국산품이 큰 피해를 입는 섬유, 신발, 장난감, 전자제품, 안경제품, 플라스틱 제품, 기계장비분야의 제품 반입 시에 세관 검사를 까다롭게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Mare Vermelha가 시작된 지 한 달 동안 2만 6000건 화물이 Canal Vermelho로 분류돼 서류 심사와 화물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화물검사 강화 조치로 세관에 압류된 화물은 총 3500만 헤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압류 조치된 화물의 화주들은 연방 세무국의 각종 요구(샘플 제출, 기술 검사 등)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해 통관이 180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브라질 연방 세무국은 현재 실시 중인 Mare Vermelha가 종료된 이후에도 또 다른 수입통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서 브라질 수출 시 통관이 지연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 통관 절차 소요시간은 원칙적으로 48시간 내 이루어져야 하나, 반입품의 채널 배정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며, 경우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 통관비용은 반입품의 Gross Weight, Net Weight 그리고 물품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예를 들어 IT Software를 저장한 외장하드디스크의 경우 본 무게는 1kg 미만이지만 상품가치가 높아 10kg의 자동차 부품과 비슷한 통관비용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음
- 브라질의 경우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으며, 세관의 파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직 황색채널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관을 진행하고, 그 진행속도는 현저히 줄어듦
- 브라질 세관은 수입되는 많은 제품에 대해 under-valued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2012년 8월 무역국 산하에 국가통관운영센터(National Centre for Customs Risk Management)가 설립되었으며, 원산지 거짓 신고를 포함한 조세 회피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 세관원이 수입제품의 가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8일 기간 내에 새로운 관세가격을 책정할 수 있음
- 수입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
- 2013년 World Bank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로 물품을 수입하는데 걸리는 시일은(평균 17일) 최근 3년간 변화가 없었으나, 컨테이너당 소요되는 비용은 2009~13년간 거의 두 배(2,275미불)로 증가하였음
- 주요 요인은 브라질 항구의 적체 및 관련 공공 기관 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음

□ 통관 업체

- 브라질 통관 업무는 과정이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전문 통관사를 고용하는 편이 좋음
- 복잡한 통관업무 때문에 브라질 고객들도 통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한편 브라질에는 한인교포가 운영하는 통관업체나 한인 통관사를 둔 업체들도 있어 포르투갈어 이해가 어려운 고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음

1) AGS Customs Clearance / Importation

- 주소 : Rua Martin Afonso 24, CJ 91/92, Centro, Santos, Sao Paulo,
- Tel : (55-13) 3202-2330
- Site : www.agsdespachos.com.br
- 한인 통관사 : Mr. Jae (55-11) 9800-4226
- 수입 / 통관 업무 대행

2) Orense

- Tel : (55-11) 3431-3004 / (55-11) 8458-2540
- 한인 교포 운영, 수출입 통관 업무 대행

3) Fenicios Servicos e Logistica INTL. LTDA

- 주소 : Rua Dr.Cesar, 530 CONJ. 702 Santana, Sao Paulo
- Tel : (55-11) 2283-2439
- Site : www.fenicios.net.br
- 한인 교포 운영, 수출입 통관 업무 대행

4) News Kobras

- 주소 : Rua Jos  Paulino, 756 CONJ. 503-505, Bom retiro Sao Paulo
- Tel : (55-11) 3311-9540
- Fax : (55-11) 3229-1049
- Site : www.agsdespachos.com.br
- 한인 교포 운영, 수출입 통관 업무 대행

5) Hyc Logistics

- 주소 : Av.Paulista 777,6 andar, Sao Paulo
- Tel : (55-11) 2171-4400
- Fax : (55-11) 3289-8631
- Site : www.hyc.com.br
- 한인 교포 운영, 수출입 통관 업무 대행

3. 수입 규제

□ 수입 규제 품목

- 대부분의 상품은 자동 수입 허가규정에 해당하지만 농산품, 의료 및 군수물자 등 일부 품목은 해당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수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예를 들어,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수입 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음
-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 허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림
- 특히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 ANVISA 등록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의료기기업체 및 의약품 수출업체에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 또한, 외국 혈액제제와 중고 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헌옷, 중고타이어 등 중고 소비재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다만, 고용창출, 수출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로부터의 플랜트 이전의 경우와 동종의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대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관련 중고기계 및 설비의 수입이 예외적으로 인정됨

- 수입 자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품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수입쿼터 대상 품목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생산제품 및 FTA 체결지역 상품으로 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품목
-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이 요구되는 품목(중고기계 및 장비)
- 모든 중고 상품
- 관세 감면 혜택 대상 품목
- UN이 규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 해당 관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품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 브라질은 1994년 이후 GATT 및 WTO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의 수입 규제 조치를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브라질은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2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하였음
- 이중 91.2%인 209건이 반덤핑, 4.4%인 10건이 상계관세, 2.6%인 6건이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조치였음
- 최근 5년간 수입규제 조치 신규 건수를 보면, 2008년 16건, 2009년 19건, 2010년 12건, 2011년 15건, 2012년 18건으로 최근 3년 사이에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음
- 주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59건으로 제일 많고, 미국 25건, 인도 15건, 멕시코 9건, 러시아 8건, 남아공 6건, EU 5건 등
- 브라질은 수입규제 조치 중 반덤핑관세의 적용이 두드러지는데, 2012년 1월~9월간 47건의 신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으로써 종전 최다 기록인 2010년 40건을 넘어선 바 있음
-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은 1) 철(25%), 2) 플라스틱 및 고무(16.7%), 3) 의류(16.7%) 순임
- 브라질 반덤핑관세 적용국별 순위를 보면 1995년~2012년간 중국 79건(1위), 미국 52건(2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만 볼 경우 우리나라도 브라질이 진행한 반덤

평조사 총 28건 중 6건에 해당하여 중국 다음으로 많은 건수를 기록한바 있음

- 반덤핑 관련 브라질 정부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덤핑 및 산업 피해 조사 실무는 무역 구제국(DECOM),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은 대외통상위원회(CAMEX), 반덤핑 관세 징수는 관세청(SRF)에서 담당
- 대외통상위원회는 7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개발상공부장관이 의장)되어 있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확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 대외통상위원회 밑에 공공이익을 검토하기 위한 기술그룹으로서 2012년에 설립된 GTIP가 있으며, 무역 구제국이 제출한 기술보고서를 정리하여 1~2페이지 내외의 최종보고서를 대외통상위원회에 제출함
- 2013년 10월 기준, 우리나라는 5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고 있고, 현재 총 5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우리나라 제품의 대 브라질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수입규제 조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5건은 PVC-S(염화비닐수지), 철강 3개 품목(실리콘강판, 후판, 냉연강판), 부타디엔 고무이며, PVC-S 제품의 경우 2008년 9월~2013년 8월 조치 적용 이후 일몰 재심이 확정(2013년 8월 29일)되었음
- 최근 도금강판에 대한 조치는 중단이 결정 되었고(2012년 9월 27일)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제품은 무혐의 판정(2013년 6월 20일)을 받았음
- 브라질정부는 2012년 상반기 수입이 대폭 증가한 한국산 타이어 및 나일론사 제품에 대해 덤핑 혐의를 제기하고 7월에 사실 여부 조사를 시작하는 등 현재 나일론사, 승용차용 타이어, 액상 에폭시수지, 폴리프로필렌수지, 상업용 타이어 총 5개 품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
- 2012년 한국산 타이어 수입액은 7,412만 미불로 전년 동기대비 39.6% 증가하였으며, 나일론사의 경우 2012년 HS Code 5402.31 제품이 전년 대비 56.47% 증가하였음

VI 브라질 검역 정보

□ 표준 및 검역

- 브라질에 있어서 인증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이지만 건강, 안전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을 받아야 함
- 또한 브라질은 수입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였을 경우 수출국에서 시행한 검사를 인정해 주고 있음
- 그밖에 동식물, 육류, 어류, 낙농품, 가공식품 및 음료수 등에 대해서는 동식물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용도 밀, 토마토 씨앗 등 일부 식물류에 대하여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

□ 위생 검역 통제

- 브라질 보건부 및 농업부에서는 1959년 10월 5일자 관보를 통해 농축산물, 의료용품, 화학품, 식품 등 240여개 품목의 수입 시 사전 수입허가서(License for Import)를 받도록 발표하였음
- 세부 적용대상 품목을 보면 브라질 보건부 관할 품목에는 폴리머, 산, 섬유소 및 부품, 고무, 껌, 샴푸, 조미료, 비료, 화장품, 향수, 농약, 의료용품 등 240여개 품목이며, 농업부 관할 품목에는 동식물, 야채 및 과일, 커피, 곡물, 제분공업용 제품, 씨앗, 식용 오일, 음료, 과일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들 품목에 대해 만약 사전 수입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각 행정기관의 등록기관이나 세관 내 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
- 1999년 11월에 브라질 정부는 나무상자를 이용한 선적과 목재 포장용기에 담긴 선적품에 대하여 열이나 훈증 소독증명서를 요구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음
- 이 조치는 중국형 풍덩이에 의해 번지는 페스트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치로서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미국 등에 대하여 2000년 1월부터 적용 시행되고 있음
- 또한 브라질 정부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수입에 대하여는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강제 인증 제도

- 브라질에서는 업체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하거나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수의 품목만이 인증 취득을 의무화 함
- 공인기관의 각종 검사를 거쳐 강제적인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일부뿐으로(하기 리스트 참조), 브라질 정부는 품질 및 안전 여부가 중요시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을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로 인증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에서는 국제적인 인증인 IEC, ISO 등의 규정에 준수하여 품질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브라질 자체 품질검사인 SBAC(Sistema Brasileiro de Avalia o de Conformidade)의 규정도 적용하고 있음
- 인증기관의 경우 INMETRO, IPEM 등을 비롯한 국내 기관을 통해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브라질과 MRA를 체결한 외국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한 인증서의 내용도 국내에서 인정함
- 현재 INMETRO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미국 등의 인증기관과 MRA 를 체결하였으며, 브라질과 MRA를 체결한 한국 인증기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WTO의 원칙에 근거하여 품질인증 검사를 위해 적용하는 규정은 국산품이나 수입품 구분 없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정보통신 관련 제품 대부분의 경우 ANATEL(국가정보통신국)을 통해 강제인증 취득 및 업체 등록을 마쳐야 브라질 시장 내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주관 기관, 검사 및 시험 기관

1) INMETRO (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de Normaliza o e Qualidade Industrial) : 도량형 및 품질 관리국

- 동 기관은 통상 산업개발부 소속으로 본부는 리우 데 자네이루 시에 위치

- 각종 제품의 품질검사를 주관하며, 기준에 합당한 제품에 한해서 품질인증서를 발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각종 제품의 물리 화학적 도량형을 연구, 표준 도량형을 규정
- 각 업체에게 제품 관련 표준규정을 통보, 업체로 하여금 항상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
- 전문 인증기관으로 활동하기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테스트를 거친 후 공인된 인증기관 자격을 부여하며 인증 관련 기술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제공함
- 품질 인증 : INMETRO의 규정에 따른 품질 인증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수 시험 결과 검토 및 품질 인정 공인된 기관을 통해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에게 품질보증실(Seal) 부착

- INMETRO - 본부

- 주소: Rua Santa Alexandrina, 416- 5º andar, Rio Comprido - Rio de Janeiro - RJ, CEP: 20261-232, Brazil
- 전화: 0800- 285-1818 FAX: (21) 2563-2970
- E-Mail: homepage@inmetro.com.br
- Site: www.inmetro.gov.br

2) IPEM (Istituto de Pesos e Medidas) : 도량형, 품질관리국

- 주정부 소속 기관으로 INMETRO와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INMETRO와 더불어 각종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규격 등을 검사, 관리하는 기관으로 각 주별로 별도의 기관이 있음

- 상파울루 주의 경우 IPEM-SP (IPEM 상파울루 지국)이 있음

- IPEM- SP

- 주소: Rua Santa Cruz, nº 1.922 - 7º andar - Vila, Cep 04122-002 Gumerindo, São Paulo, SP, Brazil
- Phone / Fax : (55-11) 5085.2602 / 5085.2603
- E-mail : gabinete-ipem@ipem.sp.gov.br
- Site : www.ipem.sp.gov.br

3) INMETRO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국내 외 전문 인증기관

-
- OCS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Sistema de Qualidade)
 - 특징 : 시스템의 품질 인증
 - 적용 규정 : ABNT, ISO9001
 - 기관수 : 브라질(29), 아르헨티나(1), 베네수엘라(1), 우루과이(2), 미국(1)

 - OCP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Produto)
 - 특징 : 제품 품질 인증
 - 적용 규정 : 제품에 따라 각종 국내 및 해외 규정을 적용
 - 기관수 : 브라질 (50), 아르헨티나(3), 코스타리카(1), 베네수엘라(1)

 - OCA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Sistema de Gestão Ambiental)
 - 특징 : 환경관리 시스템 인증
 - 적용 규정 : NBR ISO 14001
 - 기관 수 : 브라질(17), 아르헨티나(1), 미국(1), 우루과이(1)

 - OHC (Organismos de Certificação de Sistema de Gestão da Análise de Perigos e Pontos Críticos de Controle)
 - 특징 : 식품안전 관련 인증
 - 적용 규정 : ABNT NBR 14900
 - 기관수 : 브라질(1)

 - OPC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Pessoas)
 - 특징 : 인력품질 인증
 - 적용 규정 : SBAC
 - 기관수 : 브라질 (7)

 - OCF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Manejo de Florestas)
 - 특징 : 삼림관리 관련 인증
 - 적용 규정 : NBR 14789
 - 기관 수 : 브라질 (2)

 - OCE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Sistemas de Gestão da Qualidade NBR 15100)
 - 특징 : 우주공학 관련 프로젝트, 건축물, 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 적용 규정 : NBR 15100

- 기관 수 : 브라질 (3)
- OCQ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Sistemas de Gestão da Qualidade QS9000)
 - 특징 : QS 9000 관련 인증
 - 적용 규정 : QS 9000
 - 기관 수 : 브라질 (11), 아르헨티나(1)
- OCO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Sistemas de Gestão da Qualidade de Empresas de Serviços e Obras na Construção Civil (SiAC/PBQP-H))
 - 특징 : 건축공사 관련 품질인증
 - 적용 규정 : PBQP-H
 - 기관 수 : 브라질 (9)

4) ANATEL (Agencia Nacional de Telecomunicações) : 국가정보통신국

- 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으로 통신 기기 관련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함
- 통신기기 업체들은 동 기관이 인정하는 인증기관 및 시험 기관을 통해 품질인증 및 등록 절차를 마쳐야 브라질 시장내 유통이 가능함.
- Anatel - 본부
 - 주소 : SAUS Quadra 06 Blocos C, E, F e H, CEP 70.070-940 - Brasília - DF, Brazil
 - 전화 : (55 61) 2312-2000
 - Fax : (55 61) 2312-2264
- Anatel - 상파울루 지국
 - 주소 : Rua Vergueiro, 3073, Vila Mariana - CEP 04101-300 São Paulo/SP
 - 전화: (55 11) 2104-8800
 - FAX : (55 11) 2104-8815

□ 강제인증 품목

- 강제인증은 제작 과정이나, 사용법, 유통과정에서 개인 안전이나, 공중위생, 환경 보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함

- 현재 INMETRO가 규정하는 강제인증 취득 품목은 총 42개로 다음과 같음

인증 품목	
강철봉 및 강철사	교류 형 안전장치(stabilizer) - 250V, 3KVA 이하
전기 흡수기	소화기 제조 및 수입 과정
아동용 자전거	디젤 오일용 필터
장난감 *안전 여부 검사	안전 성냥
PVC 케이블 (1KV이하)	퓨즈
케이블 (750V 이하)	가정용 아날로그 방식 전류 차단기 (440V 이하)
모토 사이클 용 헬멧	우유 (이유식) 병
버스 차체 *규격 검사	가정용 LPG 가스용 플라스틱 호스
차량용 메탄가스 저장용 철제 실린더(불합하지 않은 모델)	가정용 아날로그 식 플러그 및 콘센트
차량용 메탄가스 저장용 경합금(Light Alloy) 실린더	승용차, 트럭, 버스용 타이어 신제품
연료 주입 시스템 부속품	모토 사이클용 타이어
차량용 천연가스 주입 시스템 부속품	화물차용 중고 타이어
PVC로 감싼 컨덕터(conductor) (전압:450/750V)	라텍스 콘돔
회로 차단기(Circuit Breaker)	튜브 형광등용 스타터(Starter) - 교류식
컨테이너 탑재 장치 *제조과정 검사	튜브 형광등용 스타터(Starter)
차축(Vehicular axle) *제조과정 검사	철제 가스통 (250 L 이하)
알코올 용 플라스틱 포장 용기	LPG 가스 압력 조절기 (4 kg/h 이하)
안전성냥 육로 수송용 포장용기	주유소용 지하 연료 저장 탱크
위험물 육로 수송용 포장 용기	비금속 소재 차량 연료 지하 수송용 튜브
폭발 위험 환경 사용용 전기 기기	컨테이너 수송용 차량 * 제작 및 설치
전기의료기기	차량용 안전 유리

출처 : INMETRO

- Anatel이 강제인증을 요구하는 품목은 3개 분야로 분류됨

- 일반 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전화기 단말기 등
- 통신용 장비의 일부로 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 장비 등
-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크를 책임지는 장비 중 I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 광 케이블, 다중통신 전자시스템(Multiplex), 라우터 (router) 등

□ 강제인증 승인 절차 (INMETRO, IPEM 인증)

- ① 인증 신청 양식지 (formulario 12) 작성
 - OCIPEM (<http://www.ocipem.sp.gov.br/>)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② 증빙서류 [Contrato Social(업체 대표, 재무구조 등을 명시한 서류), CNPJ(사업자 등록증)] 구비
- ③ 업체 대표 서명이 날인된 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OCIPEM에 우편 송부 또는 직접 제출
- ④ 인증 취득 신청 절차 통보 : 인증 신청서 검토 후, 인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한해서 OCIPEM은 인증 취득 신청 절차 및 검사 비용 등을 통보함
- ⑤ OCIPEM은 각종 제품 품질 검사 결과를 종합, 인증 승인 가능성을 판단함

□ 품질 보증의 유형

- 품질 인증(Certificacao) : 시스템 또는 제품에 관련된 인증으로, INMETRO가 인정하는 시험 기관을 통해 각종 품질 테스트를 마친 후 취득함. INMETRO가 규정하는 강제인증 품목은 물론 제조(수입)업체가 구매자의 요구에 의해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 납품업체 품질보증서(Declaracao do Fornecedor) : 제조업체 또는 납품업체가 작성한 품질 보증서로, 대부분의 구매 업체는 INMETRO의 검토 및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공정검사(Inspeccao) :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로 구매업체의 검사관 또는 INMETRO가 인정하는 전문 검사관이 납품업체를 방문하여 제조 환경 및 공정을 검사함. INMETRO로부터 품질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 중 일부임
- 품질보증마크(Etiquetagem) : 각종 테스트에 합격한 후 취득할 수 있는 품질보증마크로 INMETRO의 로고가 부착됨. 업체들이 유통 및 판매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강제인증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단, 품질보증 마크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 유통할 때는 INMETRO의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규정에 위반되는 품질의 제품이 발견될 경우 제품을 모두 압수당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품질 테스트(Ensaio) : 강제 인증을 요구하는 제품 또는 구매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

해 품질검사가 필요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INMETRO가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통해 다양한 품질 테스트가 실시됨

□ 미 이행 시 제재 사항

- 강제인증을 요구하는 모든 제품은 INMETRO가 보장하는 품질보증 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됨
- INMTERO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유통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착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은 가압류 처분을 당함
- 품질인증 미 보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120일 내에 해당 제품은 무기한 압류 처분을 당하며, 제조업체 또는 수입 업체는 정식으로 고발 조치됨

Ⅶ 브라질 라벨링 정보

□ 식품 라벨링 규정

- 식품에 첨부하는 라벨에 관한 일반규칙은 ANVISA에 의한 2011년 9월 20일자 결의 259호에 정해져 있음
- 동 결의에 가공식품표시에 관한 규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 식품명
 - 원재료일람
 - 내용량(정량)
 - 원산지
 -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로트식별 : L 에 이어서 회사코드, 제조일 또는 사용기한을 표시함
 - 유통(소비)시간
 - 특별히 필요한 취급 사항
 - 조리법이나 사용법의 설명(필요에 의해서)
- 또한 2003년 12월 23일자 RDC결의 359호에는 라벨에 필요한 식품의 용량표시에 관한 기술적 규칙이 정해져 있음
- 특히 2003년 12월 23일자 RDC 결의 360 호에는 포장된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음
- 동 결의에서 정해져있는 표시의무사항은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총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식물성유, 나트륨 정보임
- 단, 360호에 관해서는 알코올음료 및 음료수, 사탕 등 일부의 식품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브라질에 특징적인 점은, 가공식품에 글루텐의 함유에 관한 표시를 하는 점임
- 이것은 2003년 5월 16일자 법령 10,674호에 의해 정해져 있음

- 밀 관련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글루텐의 장내흡수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세리악” 환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무로 모든 가공식품에 적용
- 이를 위해서 실제의 식품을 보면 “CONTEM GLUTEN” (글루텐을 포함함) 또는 “NAO CONTEM GLUTEN” (글루텐을 포함하지 않음) 라는 찢이 패키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많음
- 캄피나스 대학 식품공학부(Food Engineering Department)에서는 캄피나스 지역에서 수입 판매되고 있는 약 120종류의 제품을 분석하였음
 - 해당 조사에서는 표시의 오류나 실수가 555건 발견 됨
 - 필수정보에 오역이나 포르투갈어의 실수도 발견되었음
 - 또한 영양정보도 불완전. 심각한 문제의 한 가지는 정확하게 글루텐표시를 하고 있는 제품이 절반 정도 밖에 안 되었음
 - 나머지 받은 글루텐에 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 현재는 하기 표기사항이 필수가 되어, 이후 수출되는 식품의 대응이 필요

<영양표시 예시(가로)>

INFOMACAO NUTRICIONAL Porcao g ou ml(medida caseira) 영양표시		
Quantidade por porcao (단위 당 수량)		%VD(1일 당 가치)
Valor energetico 열량	(Kcal=KJ)	
Caboidratos 탄수화물	G	
Protein 단백질	G	
Gorduras totais 총지방	G	
Gorduras saturadas 포화지방산	G	
Gorduras trans 트랜스지방산	G	(nao declarar)
Fibra alimentar 식물섬유	G	
Sodio 나트륨	MG	
"Nao comtem quantidade significativa de(valor energetico e/ou os nomes dos nutrientes)"		

<영양표시 예시(세로)>

Informação Nutricional: Porção g ou ml (medida caseira) Valor energético... kcal = kJ (...% VD); Carboidratos...g (...%VD); Proteínas ...g (...%VD); Gorduras totais ...g (...%VD); Gorduras saturadas ...g (...%VD); Gorduras trans ...g (...%VD); Fibra alimentar ...g (...%VD); Sódio ...mg (...%VD). "Não contém quantidade significativa de...(valor energético e/ou os nomes dos ingredientes)".

* % Valores Diários com base em uma dieta de 2.000 kcal ou 8.400 kJ. Seus valores diários podem ser maiores ou menores dependendo de suas necessidades energéticas.

- 다른 문제는 제조자에 대한 정보임. 절반 이상의 제품이 수입자의 명칭만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주소, 전화번호등의 상세정보가 없었음
- 이로 인해 고객이 질의가 있어도 수입자나 제조자에 문의를 할 수가 없음
- 또한 제품에 중량에 관해서도 잘못된 정보가 라벨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음
- 마지막으로 많은 회사가 영양성분을(포루투갈어가 아닌) 원산국의 언어로 표시하고 있었음. 브라질의 법령에는 영양정보의 포루투갈어 표시가 의무임
- 유전자 조작품을 원료로 한 식품에 관해서도 표시의무가 있음

<올바른 표시라벨의 예>



VIII 브라질 바이어 정보

※ 바이어 리스트는 별도 엑셀 파일로 작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CEAGESP : www.ceagesp.gov.br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www.qia.go.kr
- 농수산물식품 수출지원정보 : <http://www.kati.net/>
- 관세청 : www.customs.go.kr
- GTA : <http://www.tradestatistics.com/gta/>
- 브라질 농림부 : www.dw.agricultura.gov.br
- IBRAF : www.ibraf.org.br